

청정수소의 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모색

- 2025 청정수소 국제포럼 개최(8.27), 국내·외 전문가 150여명 참석
- 청정수소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현황 진단 및 미래 비전 공유

청정수소 선도를 위해 세계 최초 수소법을 제정하고 청정수소발전 입찰 시장, 청정수소 인증제 등 생태계를 조성 중인 정부가 이번에는 글로벌 협력을 통해 청정수소 확산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8월 27일(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소연합과 공동으로 「청정수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를 맞는 금번 포럼은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의 부대행사에서 에너지&AI 서밋의 공식 컨퍼런스로 격상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포럼의 사전 행사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소연합,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청정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수소연합의 수소산업 진흥 기능, GGGI의 글로벌 네트워크, 한국수력원자력의 청정수소 실증사업 경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청정에너지 확산을 가속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수소위원회(Hydrogen Council)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를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 총 150여명이 참석하여 청정수소 경제의 미래를 조망하고 글로벌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조연설에서는 ▲청정에너지 및 청정수소의 미래, ▲청정수소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제언, ▲청정수소 실증사업 사례 및 교훈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앞선 주제를 바탕으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박진남 경일대 교수를 좌장으로 청정수소 확산 가속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했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TNO, ACWA Power, 삼성물산과 같은 국·내외 국제기구 및 기업 등의 전문가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으며,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국민주권정부에서는 R&D 지원 및 수소특화단지 확대 등 전주기 수소산업 생태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 고 정부의 육성 의지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청정수소 경제 실현은 특정 국가만의 노력 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번 포럼이 전 세계 파트너들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고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수소산업과	책임자	과 장	권현철 (044-203-3970)
		담당자	사무관	오한준 (044-203-3971)



□ 행사 개요

○ (목적)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달성을 위해 미·EU 등 주요국의 정책·기술개발 및 프로젝트 추진 동향을 점검하고 글로벌 협력의 장(場) 마련

○ (일시/장소) 8.27(수) 14:45 ~ 17:30/ 벅스코(BEXCO) 314~317호*

* 금번 포럼은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공식행사로 최초 개최

○ (주최/주관/후원) 한수원/한국수소연합/산업부, 국회 수소경제포럼

○ (참석대상) 국제기구, 주한대사, 민간, 학계 등 150여명

* 주요 참석자 : 김상협 GGGI 사무총장, 칠레·캐나다 주한대사, 두산퓨어셀 대표이사, 블루에너지코리아 대표이사 등 총 30인

□ 주요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4:45~14:52	07'	■ 청정수소 협력 MOU 체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소연합, GGGI
14:52~15:00	08'	■ 주요내빈 소개, 청정수소 관련 영상 상영		
15:00~15:03	03'	■ 모두발언		한국수력원자력
15:03~15:06	03'	■ 모두발언		산업부(영상)
15:06~15:09	03'	■ 모두발언		한국수소연합
15:09~15:18	09'	■ 모두발언		국회의원(영상) GGGI
15:18~15:25	07'	기념 촬영 및 장내 정리		
15:25~16:25	60'	기조 발표	- 청정에너지의 미래	IRENA 팀장
			- 청정수소 경제성 확보 방안	IPHE 사무총장
			- 청정수소 실증 현황 및 제언	Hydrogen Council 국장
16:25~16:30	05'	장내정리 및 휴식		
16:30~17:30	60'	■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국내·외 9명 전문가

폐회